세종시 광제사 대웅보전 낙성…신도시 포교 새 장

세종=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조계종, 8월 9일 낙성법회 봉행
백만원력결집불사 두 번째 결실
전통문화체험관 개관식도 열려

도시 포교 중점 도량으로서의 힘찬 시작을 알리는 광제사 대웅보전 낙성법회 및 전통문화체험관 개관식이 8월 9일 세종 광제사 대웅보전 앞마당에서 봉행됐다.

조계종 총무원 제36대 집행부의 핵심 사업 백만원력결집불사의 10대 사업 중 하나인 광제사 건립은 행정수도이며 정치 · 사회 및 지리적 중요도시인 세종시에 신도시 포교를 위한 거점사찰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널리 중생을 구제한다' 는 의미를 담아 사찰 이름을 직접 명명해 건립 초기부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날 낙성법회에는 조계종 원로의장 학산 대원 대종사,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해 중앙종회의장 정문 스님, 전 교육원장 진우 스님, 포교원장 범해 스님, 호계원장 보광 스님,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덕문 스님,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 수도권 주요사찰 주지스님 및 신도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또 주윤식 조계종중앙신도회장, 현대불교신문 구태서 대표, 조계종전국여성불자회 김의정 회장,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 세종시 최민호 시장, 정관계인사 등 각계 대표인사들도 참석해 백만원력결집불사의 인도 부다가야 분황사에 이은 두 번째 결실을 축하했다.

점안의식 및 봉불식에 이어 봉행된 낙성법회는 집행위원장 삼혜 스님과 불사추진위원회 총도감 현고 스님의 경과보고, 표창패 수여,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봉행사,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 법어, 축사, 대웅보전 현판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는 원로의장 학산 대원 대종사가 대독한 법어에서 "광제사가 동체대비 마음으로 국민이 화합하며 남북이 통일되고 인류가 행복할 수 있는 호국애민심을 실천해 이 세상이 평화롭고 행복해지는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하는 호국애민의 전법도량이 되길 바란다"면서 "또한 전통문화체험관에서는 불교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인류가 향유하게 해 한국의 불교문화는 널리 전해지고 그 향기가 법계에 가득하게 하라"고 염원했다.


조계종은 8월 9일 세종 광제사 대웅보전 낙성법회 및 전통문화체험관 개관식을 봉행했다. 사진=박재완 기자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봉행사에서 "백만송이 서원의 꽃으로 우리 사회의 절망과 고통을 희망과 행복으로 바꾸어 나아가겠다는 백만원력이 결집해 부처님 성지 부다가야 분황사에 이어 다시 한 번 이곳 세종시 광제사를 장엄하고 있다"며 "한국불교를 사랑하는 소중한 원력이 하나돼 마침내 환희로운 광제사 대웅보전 낙성법회로 이끌어 줬다. 지중하고 소중한 인연에 거듭 감사하다"고 말했다.

원행 스님은 이날 불사를 위해 힘써온 이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표창패도 수여했다.

종정예하 포상은 제23교구본사 관음사 주지 허운 스님이, 총무원장 포상은 정석 대륜건설 감사, 이광복 목운 도편수, 임성안 가람불교조각원 대표, 김쌍동 동방예술원 대표가 수상했다.

낙성법회에 이어 전통문화체험관 개관식이 봉행됐다.

전통문화체험관은 조계종과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특별자치시가 함께 계획한 사업으로 시민들에게 전통문화체험을 통해 여가 및 문화생활을 향유하고 정서함양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할 목적으로 건립됐다.

전통문화체험관 관장 동환 스님은 "체험관은 어린이, 청소년, 학생, 직장인 등과 가족들이 누구나 재밌고 편안하게 전통문화를 배우고 체험하면서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자연스럽게 느끼고 주위에 알려 나가는 열린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제사는 전월산 일대 약 1만 6000㎡(약 4,840평) 부지에 들어섰다. 대웅보전은 중층 목구조의 317.35㎡(약 96평) 규모로 건립됐으며, 주불은 석가모니불, 좌우 협시불로 아미타불과 약사여래불을 조성했다.

한국불교와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나갈 열린 공간인 전통문화체험관은 5,494.22㎡(1,662평)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다. 행정수도 세종에 걸맞게 명상체험실, 다도 체험실, 사찰음식체험장, 전통문화홍보관, 상설전시장, 미술 · 공예체험실, 주차장 등 다양한 불교문화 체험 공간으로 조성됐으며, 전통사찰의 건축 양식을 재현하면서 문화 체험이 가능한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주지후보 선출 위한 산중총회 소집 공고

불국사, 9월 6일 개최키로

조계종 제11교구본사 불국사(주지 종우)가 9월 6일 차기 주지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개최한다.

불국사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산중총회 소집 공고를 통해 9월 6일 오후 1시 경내 무설전에서 산중총회를 개최하고 '본사 주지 후보자 선출의 건' 을 다룰 것을 공표했다.

공고에 따르면 불국사 주지 후보자 등록기간은 8월 25일부터 27일까지다. 후보 자격은 법계 종덕 이상, 연령 만 70세 미만의 비구 스님으로 △중앙종무기관 부 · 실장급 이상 종무원 2년 이상 재직했거나 △말사 주지 8년 이상 재직 △중앙종회의원 4년 이상 재직 △교구본사 국장급 이상 종무원 4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또 선원법에 의해 규정된 전문선원에서 20안거 이상 성만 △교육법 47조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교육교역자로 10년 이상 재직한 경력도 인정된다.

겸직금지 대상인 소임을 맡고 있을 경우 8월 24일까지 해당 종무직을 사직해야 한다. 거주승 신고기간은 8월 16일~22일, 구성원 명부 열람기간은 8월 28일~30일까지다.

송지희 기자

신안군, 특정종교 성지화 개선 요구 묵살

'1004섬' 모토 기독교 선교사업
비판에도 체험관 건립 등 추진
신안군수 "종교편향 없다" 일관

국민혈세로 특정종교 성지화를 진행해 논란을 야기한 신안군이 이에 대한 개선 요구를 사실상 묵살해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조계종 사회부와 종교평화위원회는 8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와 함께 신안군을 현장 방문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신안군 측은 재방방지책 마련 등에 대한 약속은커녕, "종교편향이 아니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이날 사회부장 원경 스님은 박우량 신안군수를 만나 "종교 편향적 인식 제고와 문제점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박 군수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 마케팅 차원에서 진행한 것 뿐"이라며 도리어 "향후 불교 테마섬 순례길 조성 등을 통해 불교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라며 마치 불교계 달래기식 모습을 보여 공분을 일으켰다.

신안군은 관광 활성화라는 명분하에 군내 도서에 공적자금으로 기독교 선교사업을 정책으로 채택, 대대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논란을 빚어왔다. 특히 5년간 40억 원을 투입해 '1004섬 신안' 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십자가와 12사도의 명칭이 달린 예배당을 건립했으며, 기독체험관 및 순교 기념관 건립을 위한 예산도 국 · 군비로 책정한 상태다.

조계종은 종교편향 정책에 대한 신안군의 명확한 인식 정리와 참회, 개선을 전제로 추가적인 논의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국가권익위원회를 통해 신안군수를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행위로 신고하는 등 더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조계종 사회부장 원경 스님은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준수해야할 가치기준과 행위기준을 정의한 '공직자 행동강령' 을 위반한 점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조계종, 탄소중립 위한 실천 활동 제안

'저탄소생활 실천안내서'
사찰편 · 불자편 제작배포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불자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구현하는 실천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기후위기 대응이 전 지구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생명살림을 위한 불자들의 실천 법을 알리는 안내서가 출간됐다.〈사진〉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원행)은 전국 사찰 스님과 불자들이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저탄소 생활 실천 안내서' 를 제작, 배포했다.

이번에 발간된 '저탄소 생활 실천안내서' 는 '사찰편' 과 '불자편' 으로 나눠 제작됐다. '사찰편' 에서는 사찰 생활 및 법회, 사찰 운영관리, 교육과 캠페인, 불사, 숲과 텃밭조성에 대한 실천지침이 소개돼 있으며 부록으로 기후위기 관련 법문자료와 탄소절감 지원제도가 수록됐다. '불자편' 은 불자들이 각 가정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에너지 및 물질 소비 줄이기, 교통 및 수송, 자원 순환, 탄소흡수원 늘리기 등이다.

두 안내서에는 공통적으로 기후위기 상황에 대한 설명과 불교적 해결방안, 실천사항 체크리스트가 담겼다. 특히 안내서는 콩기름 잉크로 인쇄, 환경보전을 직접 실천해 눈길을 끈다.

조계종은 백중날 실천안내서를 배포하고 종단 홈페이지(www.buddhism.or.kr)에서도 무료배포할 계획이다. 또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삶의 전환을 주제로 홍보동영상도 제작 중에 있다.

임은호 기자

조계종 사회노동위, 10주년 기념식

8월 24일 역사문화기념관서

노동자, 빈곤자,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등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계층을 위한 사회활동을 실천해온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이하 조계종 사노위)가 8월 24일 오후 2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10년 기념식' 을 개최한다.

2012년 8월 27일 노동위원회로 출범한 조계종 사노위는 불교적 방법의 실천을 통해 사회 불평등과 혐오를 없애고 약자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실천해 왔다. 2015년 실천위원스님 20명을 새로 위촉하면서 사회노동위원회로 확대 개편, 기도회와 오체투지, 삼천배 등 불교적 방법으로 문제 해결에 기여했다.

행사는 조계종 사노위 10년간의 활동을 축하하고 나아갈 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모시고 그동안 고통의 현장에서 함께 했던 쌍용자동차 노동자, KTX여승무원, 김용균 노동자를 비롯한 산재사망 노동자 가족, 이주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100여 명을 초청해 10년 활동 영상과 축하 인사 영상, 공연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념식에 앞서 오전 10시 30분에는 관내 2층 국제회의장에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10년 평가와 전망 세미나' 가 진행된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박영락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목사, 김득중 쌍용자동차 지부장, 박한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이 함께한다.

사진전 '거리의 목탁' 도 8월 21~31일 관내 1층 로비에서 개최된다. 사진전은 조계종 사노위 활동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현장 모습을 담은 박승화 작가, 이명익 작가, 정택용 작가 등 전문 작가 3명이 촬영한 것으로 10년간 걸어온 길을 살펴볼 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진다.

사회노동위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차별과 고통을 없애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02)2011-1927

임은호 기자

소중한 인연에 감사드리며 '다연기획'이 힘차게 출발합니다!

삼보에 귀의하옵고,
시방의 평온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제방의 스님과 불자님들께
'다연기획'이 힘찬 출발의 인사를 올립니다.

'다연기획은' 불교 전문 종합기획사로서
2022년 6월 폐업한 '감로기획'에서
20년~30년간 일해 온 직원들이 다시 만나
설립한 회사입니다.

'다연기획'은
불자들에게 소중한 시간을 알려 주는 **불교 카렌다**
사찰의 각종 행사와 의례의식에 필요한 **행사용품**
각종 카다록과 단행본 및 현수막 등 **홍보용품**
사찰과 신행 단체의 **행사 기획 및 대행**
분야에서 일해 온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사찰의 행사와 전법 활동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며
사찰의 발전과 불자님들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2022년 여름
다연기획 임직원 일동

도서출판 다연기획 Tel 02)723-4301 Fax 02)723-4303